

고수동굴 관람대상물의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 고찰

조미령*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with the Information Board of Gosu Cave's Viewing Objects

Mi-Ryung, Jo

Abstract : The results of the consideration over the information board: First, most names on the information board have abstract names based on the type of features rather than the academic names of the cave terrain. Second, the role of the information media is insufficient because it only provides the name of features without the academic explanations. Third, there are a few mistakes in the information board, and some parts, which may cause academic debates, have not been described correctly.

Key Words : cave terrain, information board, academic explanations

국문초록 : 개방 동굴 내의 안내판은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이나 설명문을 포함되어 있으며, 동굴을 찾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명칭 및 안내문에는 많은 오류를 비롯하여 관람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올바르게 지어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의 매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대부분 동굴 지형의 학술적 명칭 보다는 지형지물의 형태에 따른 추상적인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만이 부여되어 학술적 설명문이 미약하여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셋째, 설명문의 경우,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가 보이며,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객관적이지 못한 설명이 되어있다.

주요어 : 지형지물의 명칭, 설명문, 학술적 설명

1. 서론

고수동굴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개방동굴은 관광자원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성격은 다양하여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지식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특히 단체관광의 경우는 일반적인 관광객들로 구성되지만 학생이나 학술단체 등은 동굴을 방문하여 학습장으로서의 관람목적 갖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굴내부의 지형지물

에 대한 명칭이나 설명문을 포함한 안내문은 동굴을 찾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굴지형지물에 대한 명칭 및 안내문은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없고 학술명과 임의로 부쳐진 명칭을 사용하거나 설명문에도 잘못된 설명 등을 비롯하여 관람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올바르게 지어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안내판이나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부분적 지적에 그치고 있다. 개방 동굴 측에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jjangu73@hotmail.com

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문제점 분석이라기 보다는 대상물의 명칭 및 설명문의 특성을 중심적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연스럽게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수동굴을 대상으로 이러한 동굴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이나 설명문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전반적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지 고수동굴만의 오류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동굴은 거의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논문 속에 게재된 사진은 2007년 11월에서 2008년 3월에 걸쳐 촬영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의 분포를 살펴보고, 각 지형지물의 사진과 명칭에 대한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이들 지형지물에 부여된 명칭이나 그에 대한 설명문의 유무, 설명문의 내용 검토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의

위치 및 분포

고수동굴의 내부에는 다수의 지형지물이 분포하고 있다. 석회동굴의 특성상 지형지물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들 중 지명이 부여된 지형지물은 24개에 불과하다. 학술적 가치가 많은 지형지물이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개수의 지형지물만을 관광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된 부분도 남아 있고, 여러개의 관람 루트 중 관람루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모든 대상물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로를 따라 관

람 가능한 대상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관람루트의 방향은 입구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다 안내원의 위치에서 상층부로 연결되며 상층부를 관람하고 다시 사진촬영장소가 있는 하층부로 내려온다. 이곳에서 용수골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용수골 앞에서 우회전하여 올라가면 출구로 나오는 통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 통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는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분포를 나타낸것이 그림 1이다.

관람대상물의 분포 특성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고르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관람대상 지형지물들의 거리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루한 이동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어 이동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타 동굴에서 보이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하나의 지형지물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나, 커다란 광장이 있어 그곳에 지형지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바로 돌아 나와야하는 단점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고수동굴은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관람대상 지형지물 이외에도 통로 상에 많은 지형지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수동굴은 적당한 이동거리를 통한 운동과 다양한 관람 대상물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매우 관람조건이 좋은 동굴이라고 하겠다.

3. 명칭의 유형 및 설명문에

관한 문제점

고수동굴의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안내판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안내판에 부여된 명칭을 유형분류하여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명칭과 함께 부여된 설명문을 대

표 1. 관람대상지형지물의 안내문에 대한 명칭 및 설명문 구성

	대상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							기타	
	부여된 명칭	명칭의 유형		대상물의 설명 유무	설명내용구성		대상물 특성		지형지물의 종류
		학술	형태		형태 관련 설명	학술적 설명			
1	곰바위		○	○	○		단일	유석	
2	동물뼈화석	○		○	○		단일	화석	
3	독수리바위		○	○	○		단일	유석	
4	도담삼봉		○	○	○		단일	석순군	
5	창현궁		○	○	○		복합	종유석, 석순, 석주, 석회화단구, 유석	공간성
6	층계바위		○	○	○		복합	석회화단구	
7	마리아상		○	○	○		단일	석순	
8	옥바위		○	○	○		단일	유석군	
9	세심지		○	○	○		단일	연못	
10	천정구	○				○	단일	천정구	
11	산돼지 바위		○	○	○		단일	유석	
12	유석	○		○	○	○	단일	유석군	
13	만물상		○	○	○		복합	종유석군, 석주, 유석	공간성
14	석주	○		○		○	단일	석주	대상범위 불분명
15	백층담		○	○	○		복합	종유석군, 유석, 종유커튼	
16	커어틴종유		○	○	○	○	단일	커어틴종유	
17	배학당	○		○	○		복합	종유석, 유석	공간성
18	선녀탕		○	×	-	-	단일	석회화단구군	
19	림스톤과 림푸울	○		○		○	복합	석회화단구	
20	거북바위		○	×	-	-	단일	석회화단구	
21	동굴산호	○		○		○	단일	동굴산호군	
22	황금주		○	×	-	-	복합	종유석군, 석주, 유석	
23	천당성벽		○	×	-	-	단일	유석군	
24	해구암		○	×	-	-	단일	유석	한자와 영문표기

상으로 그 내용에서 본 분류와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표1은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정리된 것이다.

3. 명칭의 유형 및 설명문에 관한 문제점

고수동굴의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안내판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안내판에 부여된 명칭을 유형분류하여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명칭과 함께 부여된 설명문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서 본 분류와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표1은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정리된 것이다.

먼저, 관람대상물의 명칭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다. 고수동굴 내 24개 대상 지형지물을 살펴보

면, 명칭이 부여된 관람대상물 24개 중 명칭유형이 학술적 명칭은 7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17개는 경관적 형태명이다. 7개의 학술명중에서 종물뼈화석은 석회동굴의 지형지물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6개에 불과하다. 전체 관람대상 지형지물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7개의 형태적 명칭을 살펴보면, 인물상, 동물상을 나타내는 바위명, 저명관광지의 명칭을 붙인 것, 특정 사물에 대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총 17건 중, 특정 사물의 형태적 명칭이 부여된 것은 8건으로 가장 많다. 실제 창현궁, 층계바위, 옥바위, 백층탑, 배학당, 선녀탕, 황금주, 천당성벽이 그것이다. 바위, 건물, 탑, 연못, 성벽 등의 다양한 사물이 표현되어 있다. 배학당의 경우는 기존 알려진 관광지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원 내의 건물에서 자주 사용되

표 3. 형태적 명칭의 유형 분류

명칭 유형	건수	대상명칭
사물명	8	창현궁, 층계바위, 옥바위, 백층탑, 배학당, 선녀탕, 황금주, 천당성벽
동물상의 바위	5	곰바위, 독수리바위, 산돼지바위, 거북바위, 해구암
저명관광지명	3	도담삼봉, 세심지, 만물상
인물상	1	마리아상

표 2. 형태적 명칭의 유형 분류

명칭 유형	건수	대상명칭
사물명	8	창현궁, 층계바위, 옥바위, 백층탑, 배학당, 선녀탕, 황금주, 천당성벽
동물상의 바위	5	곰바위, 독수리바위, 산돼지바위, 거북바위, 해구암
저명관광지명	3	도담삼봉, 세심지, 만물상
인물상	1	마리아상

는 명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물명칭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적 명칭으로 동물모양을 한 바위가 자주 사용되었다. 곰바위, 독수리바위, 산돼지바위, 거북바위, 해구암이 사용된 명칭으로 거북이, 곰, 독수리 등은 다른 동굴 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하겠다. 국내 저명 관광지나 대상물의 명칭을 따온 것도 있다. 특히 도담삼봉은 단양군의 단양팔경 중의 하나이도, 세심지는 전북 임실의 저명 낚시터와 동일한 명칭이다. 동굴 측에서 이 명칭을 따온 것인지 단순히 마음을 닦는 연못의 의미로 부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 관광지 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만물상은 금강산과 소금강의 암벽에 붙여진 경관명이다. 명칭 중에는 해구암과 같이 한문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 일반 관람객이나 초등학생들의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



(황금주)



(천당 성벽)

사진 1. 형태적 명칭이 부여된 사례



(곰바위)



(거북바위)

사진 2. 동물상의 명칭이 부여된 바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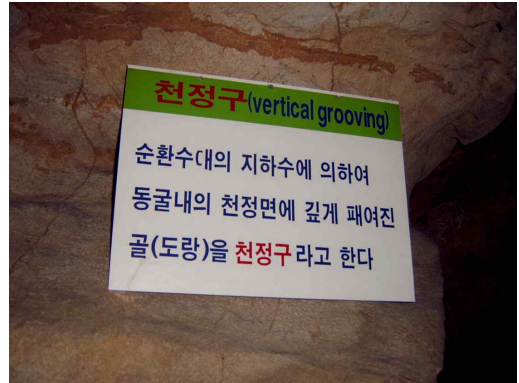
사진 3. 저명 관광지명이 부여된 사례(도담삼봉)

학술적 명칭이 부여된 것은 명칭이 부여된 총 24개 관람대상물 중 7개에 이다. 7개의 학술명중에서 종물뼈화석은 석회동굴의 지형지물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6개에 불과하다. 전체 관람대상 지형지물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용된 학술명으로 천정구, 유석, 커터틴종유, 림스톤과 림푸울, 동굴산호 뿐이다.

앞서 명칭의 특성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된다. 먼저 의도적이건 아니건, 관람대상물의 명칭 부여에 있어서 일반적 형태명의 부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관람 대상자들이 일반 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친숙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동굴관광자원은 타 관광자원과는 달리 석회암 지형이라는 특수 관광자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점, 또한 동굴은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학습의 장으로서의 관광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학술적 요소를 강조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를 들어 사적 관광지의 경우, 역사적 사실 등의 학술적 설명이나 해설이 많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동물상의 명칭이 부여된 경우, 대부분이 단순 형태를 보고 명칭을 부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람객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동굴 측의 의도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들은 대부분 모암의 일부가 돌출되거나 침식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유석이 덮여 씌워져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에게도 학술적 명칭이나 학술적 설명이 충분한 소재이다.



(천정구)



(커터틴 종유)

사진 4. 학술명칭이 부여된 사례

관람대상 지형지물에 명칭과 더불어 그 해설이나 설명문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일반 관광객뿐 만아니라 초중

표 5. 관람대상 지형지물 설명문의 내용 구성

대상지형지물	설명 내용	내용 구성 요소		
		학술명 및 학술명유무	형성과정 및 이해관련	특성 및 부연설명문의 문제점
천정구 (vertical grooving)	순환수대의 지하수에 의하여 동굴내의 천정면에 깊게 패어진 골(도랑)을 천정구라고 한다.	천정구 ○	○	용어의 어려움
유석 (flowston)	동굴 속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생성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경관을 말한다.	유석군 ○	○	미약, 오해가능성
석주(column)	.천정에서 매달리는 물방울이 종유석을 만들고 이들이 떨어져서 이른바 석순을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들 종유석과 석순의 발달이 계속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석주라고 한다.	석주 ○	○	
커어틴종유	동굴천정이나 벽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생성되는 종유석의 일종으로 그 모양이 커어틴을 걸어 놓은 듯 얇고 길게 발달된다.	커어틴종유 ○	○	
림스톤과림푸울 (rimston rimpool)	지하수가 느린 경사를 가진 동상바닥을 흘러내리면 이때 유로바닥면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 마치 논두렁과 같은 침전물이 생긴다. 이때 논두렁 같은 딱을 림스톤, 물이 고인 곳을 림푸울이라 한다.	석회화단구○	○	석회화단구 설명 미약 용어의 오류 및 어려움 오해가능성
동굴산호 (cave coral)	흔히 어떤 동굴에서도 볼 수 있는 동굴생성물로 구상을 이루는 돌기지물과 같은 모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동굴산호 ○	○	용어의 어려움
곰바위 외 12건	형태 및 형태 관련 부연설명	13건 전무	전무	
선녀탕 외 4건	명칭만 부여되고 설명문 전무	5건 전무	전무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관광의 목적을 지극 가치창출이나 학술적 성과 등에 두고 있는 관람객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문이 부착된 관람대상물을 고찰하고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해 보기로 하겠다.

고수동굴에는 24개의 대상물 중 5개를 제외한

19개의 설명문이 부착되어 있다. 학술명칭을 사용한 7개의 대상물은 학술적 근거에 의한 설명이 모두 부여되어있고, 대부분의 형태적 관람대상 지형지물에도 설명문이 부착되어 있다. 고수동굴의 이러한 설명문 부착 비율은 타 동굴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방 동굴은 명칭만 부여된 비율이 매우

높아 정보 제공 측면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설명문의 내용과 형식, 내용 구성 요소 등을 살펴보면 매우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학술명칭과 학술적 설명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형태적 학술명칭에 부여된 설명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고찰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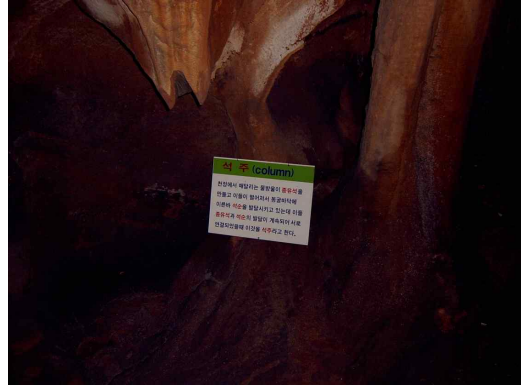
곰 바위를 비롯한 마리아상, 백층탑, 만물상 등 대부분의 형태 명칭 대상물의 설명은 단순한 명칭에 대한 부연설명에 그치고 있다. 앞의 사진 2와 사진 3의 예와 같다. 설명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곰바위 ; 애기곰을 안고 있는 곰의 모습, 2) 백층탑 ; 백층의 탑을 쌓아 놓은 모습, 3) 만물상 ;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 등이다. 모든 예를 이곳에 열거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이 명칭에 대한 부연설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숨은 그림 찾거나 보물 찾기 수준의 단순 흥미 유발을 시키는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은 대상물에 이러한 부연 설명 정도의 설명문이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관람객의 흥미를 저하시킨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4. 학술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에 대한 설명문의

내용적 문제점

학술적 설명문이 없는 17개와 동물뼈화석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설명문 내용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커어틴종유를 제외한 대상 지형지물의 명칭도 국문과 영문의 학술적 명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석주)

사진 5. 학술적 명칭과 설명문의 내용 구성이 올바른 사례

각각의 설명문에 대해 내용의 오류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지적 사항으로 정리해보겠다.

1) 천정구 ; ‘순환수대의 지하수’는 틀린 표현은 아니나 순환수대의 지하수가 동굴 내부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천정구의 용식과 침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굴 내에 지하수가 가득차서 흘러내릴 때’라는 표현이 정확하며, 관람객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2) 유석 ; ‘동굴 속을 흘러내리는 지하수’의 표현은 오류로 지적 할 수 있다. 동굴 속을 흘러내리는 모든 지하수가 유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지하수의 의해 형성되는 것이 유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굴 속 벽면을 ~’로 고침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팻말에 대한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한 유석의 경우는 지역을 넓게 보면 ‘유석군’이라는 명칭도 가능 하다.

3) 커어틴종유 ; 설명문에 커다란 오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커어틴 종유의 생성 요인 중의 중요한 요인인 천정이나 벽면의 절리면을 따

라 스며 나오는 지하수에 의해 길고 얇게 형성되는 점을 부여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설명문이 될 수 있다.

4) 립스톤과 립푸울 ; 이 대상지형지물의 경우, 학술명칭이기는 하나 석회단구의 부분적 명칭이므로, 석회화단구의 일부분임을 명칭이나 설명문에 첨가하면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설명문에 ‘동상바닥’, ‘유로바닥’ 등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동굴 ‘바닥’이라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증발 작용이 일어나~’의 표현은 오류에 가깝다. 왜냐하면 립스톤의 형성요인은 유속이 느려지거나 멈추었을 때 침전작용에 의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증발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속이 느려지거나 멈추었을 때 침전작용이 일어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5) 동굴산호 ; 표현이 형태설명에 국한되어 있다. 다른 설명문에 비해 부족하다. ‘돌기지물’이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설명문중 석주를 제외하면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오해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설명문으로 되어 있다. 정확하고 쉬운 설명문으로 관람대상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밖에 설명문의 경우 전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고수동굴의 경우 중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설명문의 영문표기나 명칭만이라도 한문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문제라 하겠다.

다음은 각 설명문의 내용 구성적 측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천정구의 경우, 형성 환경조건이나 요인이 불충분하며 그 과정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반면, 석주의 경우 제시한 형성조건, 위치, 형성 과정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잘 표현된 설명문의 한 예라 하겠다.

이상을 정리하면 학술명과 더불어 생성 조건 또는 환경요인과 생성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위의 설명문은 제시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설명문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틀에 박힌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도 높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 결론

고수동굴의 관람대상지형지물을 중심으로 안내문에 수록된 명칭이나 설명문을 고찰하여 보고 그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그 결과 동굴지형지물에 대한 명칭 및 안내문에는 많은 오류를 비롯하여 관람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올바르게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정보전달의 매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동굴 지형의 학술적 명칭보다는 지형지물의 형태에 따른 추상적인 명칭이 과다하게 부여되고 있다. 2) 대부분의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만이 부여되어 학술적 설명문이 미약하여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3) 설명문의 경우,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가 보이며,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객관적이지 못한 설명이 되어있다. 4) 관람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의 사용이 아쉽다. 5) 학술적 설명문의 경우, 지형지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성 환경요인 및 그 과정의 쉬운 표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고수동굴만의 문제점으

로 지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타 동굴들에 비하여 고수 동굴은 많은 명칭과 설명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동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고 손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굴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승삼, 1990, “일본의 Karst 지형,” 한국동굴학회지, 23, 38-55.
- 김원진, 1998, “성류굴의 지형구조와 2차생성물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5, 51-57.
- 서무송, 1975, “동굴미지형학적으로 본 한국적 특례: Quick Mud와 Cave Jewel의 성인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1, 12-16.
- 서무송, 1978, “백용굴의 성인과 2차생성물에 관한 동굴지형학적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3, 1-6.
- 서무송, 2005, “한국의 동굴과 그 이차생성물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19-38.
- 서무송, 2005, “이차원의 위중유동에 관한 동굴미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45-57.
- 서무송, 2005, “우리나라의 와지지형에 관한 성인론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59-66.
- 서무송, 2005, “동강 유역의 석회암 동굴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95-109.
- 오종우, 1994, “고씨동굴의 내부지형에 관한 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39, 14-33.
- 유재신, 1979, “영월 쌍용리, 연당리 일대의 Karst 지형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 27-35.
- 최무송, 1976, “고수동굴의 동굴지형학적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2, 7-8.
- 홍현철, 2008, 공개동굴 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87, 23-33.
- 조미령·정규환, 2009, “동굴내부 지형지물의 안내판에 대한 정보제공 특성: 고수동굴을 사례로,” 한국동굴학회지, 91, 11-20.
- 홍시환, 1993, “고수동굴의 이차생성물에 관한 지형학적 분석,” 한국동굴학회지, 33, 13-43.
- 홍시환, 1979, “중유동의 형성과정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 5-13.
- 홍시환, 1995, “온달굴의 동굴생성물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41, 11-38.
- 홍시환, 2004, “중유굴의 형성과정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2, 35-41.
- 홍시환 외, 1990, “천동동굴의 동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24, 1-41.
- 홍현철 외, 1995, “화암동굴의 지형지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42, 15-26.